

보도시점 2026. 6. 26.(금) 14:00 배포 2026. 6. 26.(금) 13:30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전주 남부시장 방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참여 독려

- 7월 22일까지 조사원 면접조사… 사업체의 적극 참여 당부
- 홍보모델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조사 대상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다.

6월 26일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전북 전주시 소재 남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경제총조사 홍보모델인 박선영 아나운서도 소통 현장에 함께하며 경제총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안형준 처장과 박선영 아나운서는 남부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경제총조사 참여 안내문을 전달하고, 최근 전통시장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로,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사업체의 자발적인 온라인 조사로 시작하였고, 7월 22일까지 약 1만 2천 명의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통계에 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체 한 곳 한 곳의 응답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경제통계 작성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경제총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혜련 (042-481-3770)
		담당자	사무관	박성인 (042-481-3771)



- ☐ (조사 목적)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 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
- ☐ (법적 근거) 통계법 제5조의4에 의한 총조사 실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71호), 경제총조사 규칙(총리령 제2065호)
- ☐ (조사 연혁) 2011년에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최초 시행, 2021년에 행정 자료 기반 조사 시행, 2026년 제4차 조사 시행
- ☐ (조사 주기) 매 5년(0자 및 5자 연도 기준) 1자 및 6자 연도에 시행
- ☐ (조사 대상) 조사 기준일 현재('25. 12. 31.),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19개 산업*)
 - *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제외
 - 모집단 753만 개 중 현장 조사 334만 개*, 비현장 조사 419만 개 사업체
 - * 전수(종사자 수 5인이상 등, 202만 개)+표본132만 개
- ☐ (조사 기간) '26. 6. 12. ~ 7. 22. (온라인 조사 6. 1. ~ 6. 30.)
- ☐ (조사표) 7종 업종별 6종, 본사 1종
- ☐ (조사 항목) 38개 공통 항목 12개, 특성 항목 26개
- ☐ (조사 방법) 면접조사 원칙, 스마트조사온라인(PC, 모바일), 전화, 이메일, 팩스 병행
- ☐ (조사 체계) 국가데이터처(주관기관), 지방정부(시행기관)
- ☐ (조사 인력) 공무원 약 1천 명, 조사요원 약 1만 6천 명
- ☐ (결과 공표) 잠정결과 공표('26.12월), 확정결과 공표('27.6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전주 남부시장에서 조사 대상 사업체(비단길)를 면접조사하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과 박선영 아나운서가 전주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참여를 당부하였다.